

정의의 종

SNU LAW MAGAZINE
VOL. 41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72동 서암관

1 2025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식 축사

이재민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2 서울법대 이야기

박윤해 법무법인(유한) 백송 대표변호사 • 선배(先輩)에게 받았던 도움, 선배가 되어 다시 후배들에 전하다
이근관 교수 • 비상계엄 속 한국의 첫 ICJ 구두변론: 기후위기의 법적 책임을 논하다
최봉경 교수 • 법학 교육과 법치주의의 위기를 해결하려면
이동진 교수 • 법학 교육의 길잡이: 교육지원센터
양현아 교수 • 연구자로서, 스승으로서, 서울법대 구성원으로서의 시간을 돌아보며
16기 심여진 • 강대국의 분쟁 틈새에서 우리 경제와 외교의 활로를 찾고파
13기 김태형 • 5년 차 반도체 공학 유튜버 ‘칩쟁이’
16기 조현지 • 댄스 크루 멤버에서 루텐스 회장으로
15기 최형식 • 비상계엄 선포 관련 법학전문대학원생 성명서 TF 참여자 인터뷰
16기 신재욱 • 로스쿨과 결혼, 두마리 토끼를 잡다

12 기획 기사

로스쿨생들의 이색 취미 생활 탐구 • 15기 강동하, 전우영, 김진태

14 법학전문대학원 소식

17 연구소·센터 소식

19 릴레이 도서 추천

20 기금 안내

SNU Law 캠페인 안내
Next Decade 기금 안내
법학발전재단 및 발전기금 출연현황 2024. 9. 1. — 2025. 2. 28.
예우 안내

정의의 종 41호
발행인. 이재민 원장
편집인. 공두현 학생부원장
기획 및 취재. 김민제 이정현 최승훈 학생기자
제작.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조인의 길을 향한 새로운 출발

친애하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7기 신입생 여러분,

입학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새로운 구성원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또한 오늘 신입생들의 입학 축하하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끊임없이 노력하여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는 여러분들의 노력과 열정이 만들어낸 값진 성과입니다. 다양한 학교와 전공 배경을 갖고 있는 신입생들은 이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기대와 설렘이 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긴장과 걱정도 하시겠지만, 차분하게 학교생활을 시작한다면 충분히 잘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신입생들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을 지도하는 교수이자 여러분의 선배로서 두 가지 조언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조언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3년간 늘 마음의 여유를 갖고 매사 즐기되 유익하게 생활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법학전문대학원의 3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이 시기 동안 신입생들은 단순히 법적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 법조인으로서 올바른 가치관과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책임감을 키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매 배움의 순간을 즐기고, 또 소중히 여기며, 학업과 생활을 통해 의미 있는 경험을 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누구나 학업이 힘들고 힘겨운 순간이 올 수 있을 것입니다. 좌절하지 말고 현명하게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얻는 배움과 경험은 앞으로 법조인의 여정에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학교는 여러분이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모든 교수님과 행정직원들은 여러분이 학교에서의 학업과 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돕고 지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법학전

문대학원에서의 과정은 때로는 험난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을 돕고 함께할 많은 이들과 함께 나아간다면, 이 과정이 한층 더 의미 있고 값진 경험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 당부하고자 하는 말은 지나치게 경쟁에 매몰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생활하면서, 학생들은 때때로 성적과 성취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높은 경쟁 압력에 놓일 수 있고, 눈앞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다른 가치를 희생하려는 유혹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조인의 길은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꾸준한 성과를 달성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분야입니다. 제 생각에는 법학 공부를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묘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평생의 공부와 연마를 염두에 두고 다음 3년은 기초 체력을 강화하는 시기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앞으로 3년간 옆에 있는 학우들과 항상 함께하게 됩니다. 원우들과 함께 고민하고, 배우며, 협력하여 성장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여러분이 이곳에서 이루어야 할 중요한 목표 중 하나입니다. 신입생분들이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협력하는 태도, 맡은 일에 대한 책임감, 원우들에 대한 배려심이라는 덕목을 갖춰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학교와 함께하는 여러분의 미래는 무한한 가능성과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학교에서 지낼 3년의 시간이 즐겁고, 유익한 여정이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 모두 예비법조인으로서의 자질을 탄탄히 쌓고, 그리고 앞으로 훌륭한 법조인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입학 축하드리고, 앞으로의 여정을 응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학교에 들어오며 품은 기대와 소망을 꼭 이룰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 2. 27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이 재 민

선배(先輩)에게 받았던 도움, 선배가 되어 다시 후배들에 전하다.

“장학금을 매 개로 후배들이 모교를 생각하는 기회를 제공하고파”



박 윤 해 법무법인(유한) 백송 대표변호사
— 법대 84학번 —

박윤해 법무법인(유한) 백송 대표변호사는 경북 김천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다. 그는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8년 검사로 임관하여 약 22년간 검사로 재직했다. 그는 2019년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을 끝으로 공직 생활을 마치고, 같은 해 9월 법무법인 백송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대표변호사로서 법무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12월 박 변호사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1천만 원의 기부금을 쾌척했다. 그는 후배들을 위해 20여 년 가까이 꾸준한 기부를 하고 있다. 모교인 김천고등학교에 총 1억 원을 기부했고, 청리초등학교와 청리중학교, 석·박사과정을 마친 송실대학교에도 거액의 발전 기금을 쾌척하였다.

박 변호사의 기부는 그가 검사로 임관한 1998년부터 시작됐다. 형편이 넉넉하다고는 말할 수 없는 초임 검사 시절부터 장학금을 기부한 계기를 물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서울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고등학교 선배님들이 모교 방문 특강을 통해 여러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하면 선배들처럼 성공하겠다는 희망을 얻었어요. 그래서 저도 검사로 임관한 후 고교 후배들을 위해 특강을 하고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후배들이 선배들의 존재만으로 힘을 얻고 자신감을 키우게끔 선한 영향력을 전하고자 했어요.”

박 변호사의 꾸준한 기부로써 후배들은 학업에 전념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일부는 그와 같이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으로 성장하여 기부에 동참하고 있다. 다른 분야로 진출한 후배들 역시 사회에 적응하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제가 쾌척한 1억 원과 별도로, 김천고를 졸업하여 서울법대에 입학한 동문 30여 명이 따로 돈을 건어서 후배들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시작한 1999년 당시에는 각 3만 원씩 돈을 보냈죠. 그렇게 마련 중인 기금으로 후배들에게 10년은 더 지원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의 30년 가까이 후배들을 도울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정말 보람된 일입니다.”

그와 같은 선배들의 기부로 우리 법전원 재학생들은 필요에 따라 다양한 기금을 지원받는다. 그 덕분에 재학생들은 학업을 무사히 마친 채 각자의 진로를 선택하게 된다. 최근에는 급여를 이유로 공직보다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 등 민간 영역을 선호하는 재학생이 크게 늘었다. 경제적 보상과 꿈 사이에서 갈등하는 재학생을 위한 조언을 구하였다.

“진로 선택은 가치관이나 경제적 능력이라든지 이런 요소가 전부 합쳐져서 이루어져야 하느니만큼 강요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검사로서 22년간 공직에 있으며 월급으로 살아왔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은 장학금도 기부하고 봉사활동도 하면서 나름대로 큰 보람을 느꼈어요. 모두가 경제적 보상을 좇게 된다면 그 역할을 할 사람이 없잖아요. 우수한 후배들이 공직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고루 기여해주기를 바라는 희망을 품어봅니다.”

박 변호사는 법무법인을 설립해 이를 현재까지 이끄는 대표변호사이기도 하다. 변호사 4명으로 시작한 법무법인(유한) 백송은 최근 매출 100억 원을 달성했다. 전국 로펌 중 50위권 안에 해당하는 매출이다. 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이러한 성과를 이루어낸 그에게 성공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소가 무엇인지를 물었다.

“전문성과 성실성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문성이 없으면 좋은 성과를 내기 어렵고 성실하지 않으면 의뢰인의 신뢰를 얻기 힘듭니다. 또한, 법조인의 역할은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의 실현과 약자의 보호라는 본질적 가치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명심했으면 합니다. 의뢰인에게 최선의 해결책을 제공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후배들이 성장해나가기를 응원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최승훈 학생기자

비상계엄 속 한국의 첫 ICJ 구두변론: 기후위기의 법적 책임을 논하다



이 근 관 교 수

지난해 12월 3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한국 대표단이 사상 최초로 구두변론을 진행했다. 특히, 한국에서 비상계엄이 발효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변론이어서 더욱 주목받았다. 이번 변론은 기후변화와 관련한 국제법적 의무를 논의하는 자리였으며, 한국 대표단은 30분간 발언 기회를 가졌다. 황준식 외교부 국제법률국장님이 모두발언을, 이근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기후변화의 법적 결과를 논의하며 국제법적 쟁점을 제기했다.

국제법위원회(ILC)와 기후변화 논의

이근관 교수는 UN 국제법위원회(ILC) 위원으로서 기후변화 관련 법적 문제를 연구하고 있다. ILC는 국제법의 발전과 법전화(codification)를 담당하는 UN 총회의 보조 기관으로, 현재 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 관련 법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

ICJ의 역할과 핵심 쟁점

ICJ는 국제 분쟁 해결과 권고적 의견 제공 역할을 수행하며, 이번 절차는 후자에 해당한다. 2023년 UN 총회의 결의에 따라 ICJ는 두 가지 핵심 질문을 검토했다. 첫째,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각국이 부담하는 국제법상의 의무는 무엇인가? 둘째,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법적 결과는 무엇인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대립

이번 논의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책임 문제가 대두되었다. 바누아투 등 소도서국가들은 선진국이 산업화 과정에서 과다한 온실가스를 배출했다며 금전적 배상을 요구했다. 반면, 미국과 영국 등은 전통적인 국가책임법보다 기후변화 조약 체제가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논의의 중심에는 배상 책임을 다루지 않는 파리협정이 있었다.

한국의 외교적 입장

한국은 이러한 대립 속에서 독특한 외교적 입장을 취했다. 이근관 교수는 “한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국가로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연결하는 ‘교량(bridge) 역할’을 자임해 왔다. 이번 변론에서도 이러한 외교적 정체성을 반영하여, 전통적인 국가책임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어야 하지만, 기후변화 문제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파리협정을 중심으로 하는 기후변화 조약 체제가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균형 잡힌 입장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ICJ의 권고적 의견과 국제사회의 반응

이근관 교수는 ICJ의 권고적 의견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법 해석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등 다양한 국제사법기관에서도 기후변화 문제를 논의의 중이며, 이러한 논의는 국제법적 틀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법률가로서의 역할과 책임

그렇다면 법률가로 성장하고 있는 로스쿨 학생들은 이러한 기후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이근관 교수는 “기후변화 문제는 법률가들에게 단순한 법적 쟁점을 넘어 실존적 문제”라고 강조하며, 법률 전문가로서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기후변화는 단순히 국제법적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 세대의 삶과 연결된 ‘당신’의 문제이다. 따라서 법률가들은 사법 절차를 통해 기후 정의(climate justice)를 구현하거나, 국제기구 및 NGO에서 정책 개발과 입법 활동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근관 교수는 “기후 문제는 미래 세대에게 어떤 지구를 남길 것인가에 대한 책임의 문제입니다. 법률가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깊이 고민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이정현 학생기자

법학 교육과 법치주의의 위기를 해결하려면



최 봉 경 교 수

최봉경 교수는 지난 11월 한국법학교수회 제17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최 교수는 연세대 법대를 졸업하고 독일 뮌헨대학교에서 민법을 전공했다. 그는 2003년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로 부임하여 현재까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법학교수회는 법학교육의 발전 및 학계와 실무의 협력을 통한 법치주의의 창달을 목적으로 창립됐다. 최근의 비상계엄 선포 등 위헌, 위법적 조치들로 말미암아 법치주의가 매우 위태롭다. 법학교육도 위기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은 도입 취지가 훼손됐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법과대학은 그 존폐를 걱정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힘겨운 상황에서 회장으로 당선된 최 교수에게 법학교육이 직면한 문제와 그 대안을 여쭙었다.

한국법학교수회를 어떻게 이끌 계획인지 궁금하다.

한국법학교수회는 법학교육의 위기 또는 법치주의의 위기를 주제로 일관되게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유사한 주제로 전국 법과대학 교수회, 주요 4대 법학회, 법전원협의회와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최근에는 삼부 요인을 초청해 법학교육의 문제를 토론했고 그 결과 협의체가 가동되던 중 계엄 사태의 발생으로 중단이 됐다.

올해 9월에는 한국법학자대회를 큰 규모로 개최하고자 한다. 법학자들이 모여 격려도 하고 또 교육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를 공유하여 목소리를 내고자 한다. 지금의 제도로는 훌륭한 잠재력을 가진 학생들이 시험 합격에 연연하다가 다양하고 깊게 공부하지 못한 채 졸업한다. 학생들을 위해 또 법학 자체를 위해, 전임자의 뒤를 이어 거듭 노력해나가고자 한다.

지금의 변호사시험 제도의 문제와 대안은 무엇인가.

최근의 합격률은 50% 초반대이다. 낮은 합격률로 학생들이 선택과목, 기초과목을 멀리한다. 합격률이 80% 정도 선에는 이르러야 한다. 우리(한국법학교수회)가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매년 5%씩 합격률을 높이면 내년을 기점으로 오히려 합격자 수는 떨어진다. 2030년에는 합격률이 75% 정도여도 합격자 수는 지금과 비슷한 1,700명 정도로 수렴할 것이다. 재수생, 삼수생이 해소되기 때문이다. 합격률을 높여도 합격자 수를 안정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시험을 채점한 분들 말씀에 의하면 대부분 학생의 성적은 합격선 주변에 몰려 있다. 합격률을 높여도 충분히 훌륭한 변호사들이 배출된다. 실력 실력이 부족해도 시장 경쟁을 통해 자연스레 뒤쳐질 것이다. 변호사 자격을 아예 주지도 않을 일이 아니다. 오탈자가 1,700명이 넘었다고 한다. 그들은 10년 가까이 투자한 청춘을 날리는 것 아닌가.

로스쿨이 변호사시험 학원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크다.

로스쿨을 도입한 지 16년이 됐다. 사법고시 체제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도입한 제도인데 되려 그때의 문제가 악화해 나타나고 있다. 합격률이 낮으면 학생들은 어떻게 하겠는가. 민법, 형법, 공법에 시간을 쓰기도 벅차다. 선택과목 중 가장 많이들 선택하는 국제저래법을 보면 학생들은 3일 단기 특강으로 시험을 대비한다. 수요가 적으니 로스쿨은 교수를 채용하지 않는다. 법철학과 같은 기초과목도 서울대 정도만 필수적으로 수강하는 것으로 안다.

법철학, 방법론에 의해 논증되지 않는 법학은 얄다. 실무에 나가면 차이가 클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 로스쿨은 선택과목, 기초과목을 커리큘럼에서 내려놓고 있다. 결국 교수들은 폐강을 막기 위해 학부 과목을 같이 개설해야 한다. 한편 학생들은 시험을 레포트로 대체해주지 않으면 수강을 철회하겠다고 말한다. 선택과목, 기초과목 교수들은 이러한 현실에 큰 자괴감을 느낀다. 로스쿨이든 법과대학이든 학생도 교수도 예산도 전부 줄고 있다. 우수한 법대들이 지금은 존폐를 걱정하고 있다. 지금의 인가주의가 아닌 준직주의를 통해 어느 학교든 로스쿨을 설립하게끔 하여 법학에 대한 수요를 늘릴 필요가 있다.

민주와 법치의 위기 속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상대가 자유를 위협할 때 태클을 걸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은 법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법이 존재하여도 민주주의가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흔히들 ‘오물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랴’라고들 말한다. 그런데 그렇게들 피하다 보면 결국 오물이 공론의 장을, 또 사회를 장악한다. 법이 개입할 수 없는 영역에서의 개인의 용기와 노력이 중요하다.

법으로 모든 것을 규정할 수 없다. 법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최근의 사태들을 보면 제도의 문제보다 인간 의지의 문제가 더 크지 않은가. 법이 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자율과 연대, 포용을 함께 논해야 한다. 법을 그대로 행사한다고 민주주의가 지켜지지 않는다. 오히려 권한 행사를 자제하며 어떤 조직이나 단체의 자율적인 기능을 살리고, 제도의 공백이 있다면 성숙한 관행과 타협으로 이를 채워야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최승훈 학생기자

법학 교육의 길잡이: 교육지원센터



이 동 진 교 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지원센터는 학생들의 법학 학습을 돕고 실무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인터뷰에서는 교육지원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동진 교수님을 만나 센터의 설립 취지와 역할, 향후 계획, 그리고 민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주는 조언을 들어보았다.

교육지원센터의 설립 취지와 역할

교육지원센터는 기존의 법학 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확장하여 보다 체계적인 교육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동진 교수는 “센터가 생기기 전에도 가이우스(GAIUS) 프로그램이 존재했으며, 교육지원센터 설립 후 이를 통합하여 더욱 확장된 학습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센터의 주요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법학 학습을 지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학생들에게 학업 및 진로 상담을 제공하여 개별적인 공부 방법과 진로 탐색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펠로우 세션은 처음 법학 문제를 접하는 학생들에게 특히 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다. 이동진 교수는 “펠로우 세션은 사례형 문제를 처음 접하는 학생들이 변호사로부터 개별 첨삭을 받으며 법학 학습의 기초를 다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로스쿨에 입학하면서 학습 격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지원센터는 이러한 격차를 완화하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

교육지원센터의 향후 운영 방향

현재 교육지원센터는 다양한 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보다는 기존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동진 교수는 “센터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이미 상당히 포괄적이며, 학생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학습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이 현재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졸업 후 곧바로 임용되기 때문에, 검

찰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언급했다. “많은 학생들이 교육지원센터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 프로그램을 보다 효과적으로 홍보하여, 학생들이 학습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민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주는 조언

이동진 교수는 민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두 가지 조언을 전했다. 먼저, 법학을 공부할 때 법조인의 실무적 시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법은 실제로 피와 살이 있는 사람들의 분쟁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단순히 법리를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고민하면서 공부해야 합니다”

두 번째 조언은 비판적인 사고를 기르는 것의 중요성이다. 교수는 “우리 학생들은 법조인이 될 뿐만 아니라, 리더로서 법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어진 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변호사 시험이 가까워지면 실질적인 공부에 집중해야 하지만, 법률가로서 성장하려면 비판적 사고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맺음말

이동진 교수는 “교육지원센터는 단순한 학습 보조 기관이 아니라, 학생들이 법률가로 성장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더욱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법학을 처음 접하는 신입생부터 변호사 시험을 앞둔 3학년 학생까지, 교육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성공적인 법학 공부의 핵심이 될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이정현 학생기자

연구자로서, 스승으로서, 서울법대 구성원으로서의 시간을 돌아보며



양 현 아 교 수

서울법대에서의 오랜 시간을 뒤로 하고 2025년 8월 퇴임할 예정인 양현아 교수는 법학과와 첫 만남을 선명히 기억한다. 사회학도로서 예일대 로스쿨의 강좌였던 「Feminist Jurisprudence」를 청강하며 ‘법학이 사회학보다 사회학이었던’ 경험을 하고, 법의 담론장적 성격에 매료되었다. 그는 전공을 바꾼다는 의식도 없이 법학과 사회학의 경계를 넘나들며 박사과정을 밟았고, ‘전통과 근대의 교차로에 선 한국 가족법에서 여성의 법학을 전망함’이라는 논문을 통해 법학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후 호주제 폐지, 위안부 진상규명 등 역사적 사건들의 파도에 몸을 싣고 많은 책임과 고난을 짊어지며 살아온 양현아 교수의 지난 연구 생활은 많은 후대 법학도에게 귀감이 된다.

문제는 ‘젠더갈등’이 아니라 ‘젠더적 관점의 결여’

근래 한국사회는 소위 ‘젠더갈등’이 화제이다. 그러나 양현아 교수는 젠더, 나아가 성(性, Sexuality)의 문제는 더 넓고 거대한 담론임을 강조한다. 단적으로, 성폭력 범죄는 가해자 대 피해자라는 개인화된 틀에 갇혀 다루어질 것이 아니라, 타인의 관여와 인근 환경을 포함한 사회 구조적 관점에서 대응하여야 진정 예방할 수 있다. 그는 이러한 담론에 관한 사회의 무지와 어긋난 관심이 현상을 제대로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한 채 피상적인 정치적 선전으로 고이고 있는 실태를 지적한다. 예를 들어, 선진국에서 대졸 여성들의 일·가정양립이 공고해지면서 그들이 인구의 재생산력을 뒷받침하는 계층이 되고 있다는 경향성이 명백히 존재함에도, 젠더적 관점을 애써 무시한 채 집값·일자리·양육비용 등의 경제적 관점만을 배타적으로 가지고 접근하는 방식은 문제해결에 충분하지 못한 결론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다. 양현아 교수는 법률가들이 단순히 젠더적 관점을 정책적 층위에서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

에서의 쇄신으로부터 출발하는 ‘내부의 이야기’로 인지하기를 바란다는 당부를 남겼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들

사회과학적 방법론이 법학에 적용되어야 할 영역은 매우 넓다. 손해배상의 방법이라는 주제만 살펴보더라도, 위자로 산정의 기준, 일일이익의 개념 등 많은 요소에서 법조계가 간혀 있는 ‘사회통념’을 깨기 위한 성실한 연구와 변론이 필요하다는 것이 양현아 교수의 생각이다. 이를 통해 인권을 회복하고, ‘노동하는 인간’에 그치지 않는 ‘행복한 삶을 누리는 인간’의 보호법익을 빚어나가야 할 이는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이들이 해야 할 일이다. 다른 한 편, 양현아 교수는 그의 주요한 연구 분야였던 포스트식민주의를 통해 사회의 기초가 되는 가족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식민지배 이후 고유의 문화와 이식된 제도가 혼돈을 겪으며 ‘한국의 가족’을 주도로 형성하지 못한 대가는, 인식하고 있든 그렇지 않든 대한민국의 가족들이 짊어지고 있는 고통을 구성한다. 가족법 체계에 관해 오늘날까지도 관성화된 내부의 식민지성을 직시하고 그 개혁에 게을러져서는 안 될 것이다.

양현아 교수는 마지막으로 교육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85년도 입학부터 지금까지 지내 온 서울대학교 캠퍼스를 돌아본다. 특히 공동체가 상실되어 가는, 수업이 끝나면 학생들이 일제히 빠져나가는 공동화된 학교의 모습에 아쉬움과 우려를 표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학교 안과 밖의 경계가 높아지고, 여유와 휴식이 없는 현실 속에서도 공익을 고민하고 위하는 마음만은 학생들에게서 사라지지 않고 성장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법학전문대학원 김민제 학생기자

강대국의 분쟁 틈새에서 우리 경제와 외교의 활로를 찾고파 제16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최우수변론상 수상자 인터뷰



16기 심 여 진

지난 2024년 8월 20일 개최된 제16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에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팀이 최우수상(1등)을, 같은 학교 16기 심여진 원우가 최우수변론상(장관상)을 수상했다. 해당 경연대회는 외교부와 대한국제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이번 대회에서는 전시 국제인도법 적용에 관한 33개 참가팀 간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루어졌다.

심여진 원우는 서울대 경제학과 재학 중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에 최연소 합격한 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였다.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수상자 중 상당수는 학계와 정부 등 영역에서 국제법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다. 심 원우 역시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수학 및 졸업 후 실무 경력을 통해 장차 국제규범과 질서를 끌어 나가는 미래세대를 꿈꾸고 있다. 그녀를 만나 국제법에 관한 그만의 열정과 관심을 자세히 청하였다.

Q. 외무고시 합격에도 불구하고 로스쿨에 입학한 계기?

합격 당시 나이가 어려서인지 당장 정부에서 일하는 것에 불안한 마음이 있었다. 또 고시 공부를 하며 헌법과 국제법 공부를 더 해보고 싶기도 했다. 외교관이라는 직업은 스페셜리스트라기보다는 제너럴리스트라고 생각한다. 다만 조직 내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해 결국 나만의 전문성이 필요할 것인데 법학 적성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로스쿨에 진학하게 됐다.

Q. 고시생일 때와 로스쿨생일 때의 모습을 비교해본다면?

고시생일 때는 장래의 진로가 보장되지 않으니만큼 압박감도 크고 무서웠다. 계획을 전부 흔차야 하고 수업도 알아서 찾아 들어야 하고, 조언해 줄 사람을 만나기도 어려웠다. 로스쿨은 반면 3년간 열심히 공부하면 직업이 생긴다는 사실에 조금은 편안한 마음이 든다. 조언해 줄 선배도 훨씬 많고 또 조언의

넓이와 깊이도 다양하다. 로스쿨만의 시스템이 좋은 것 같다.

Q. 이번 대회에서 1등을 했는데 대회 준비 과정을 소개해달라.

자료를 구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 국내법과 달리 국제법에 관한 국내 자료가 꽤 적다. 자료가 있어도 학생이 접근할 수 있는 리소스는 또 많지 않다. 워낙 해외 문헌들이 많기도 해서 우리가 일일이 영어나 불어를 번역해야 했다.

또 이번 대회의 문제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참고한 것 같았다. 전쟁을 일으킨 쪽의 책임이 크기에 피소국이 제소국보다 압도적으로 불리한 위치에서 재판하는 구도였다. 그래서 피소국 입장에서의 변론이 특히 어려웠지만, 허점이 보인다면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이용하는 쪽으로 연습을 진행했다.

Q. 최근의 국제 정세에 대한 나름의 분석을 공유해달라.

최근의 분위기는 냉전 후 평화로웠던 국제 정세의 그것에 역행하고 있다. 국제 사회가 그동안 쌓아온 규범이나 컴플라이언스, 이를테면 자유무역 기조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있다. 전쟁이 잦아졌고, 무엇보다 미국의 리더로서의 역할이 트럼프 1기 행정부를 거치며 많이 무너졌다. 그리고 바이든 정부를 거쳐 다시 트럼프가 당선됐다.

국제적 불안이 계속 커질 터인데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금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나 수출입 구조를 살펴보면 결국 우리가 기댈 곳은 국제 규범의 형성이다. 중견국이 소외받지 않기 위해서는 중견국만의 목소리가 국제법으로써 반영될 필요가 있다. 국제법 공부의 중요성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Q. 본인이 희망하는 로스쿨 졸업 후 진로는?

미국, 중국, 유럽 모두 보호 무역을 강화하려는 기조가 강해지고 있다. 본인들이 세워둔 규범을 깨버리고 자국 우선주의로 돌아선 것이다. 우리 기업 처지에서는 결국 강대국들의 그러한 규제에 순응하고 친화적으로 반응해야 한다. 변호사로서 그러한 규제에 관해 전문적 자문을 하거나 혹은 외교관으로서 우리와 유사한 국가의 입장을 규범으로 만들어 대응할 수도 있다. 어느 쪽이 더 맞을지는 공부를 계속해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법학전문대학원 최승훈 학생기자

5년 차 반도체 공학 유튜버 ‘칩쟁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13기 김태형 원우는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에서 학사를, 동 대학 전기정보공학부 반도체 재료 및 소자 연구실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3D 산업 영상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하던 중 우리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다.

김태형 원우는 5년 차 유튜버이기도 하다. 보통의 로스쿨생 유튜버들의 주된 콘텐츠는 영상 일기나 로스쿨 입학 방법 등에 관한 것이다. 그의 채널은 다르다. 그는 전공을 살려 반도체 산업 전반, 이를테면 시장 동향이나 취업 방법을 소개한다. 이번 제 14회 변호사시험을 마쳐 여유가 생긴 후 그는 매주 월요일 밤마다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를 묻자, 그는 “유튜브나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미디어를 적극 활용하여 저를 알리는 창구로 사용하고 자 합니다. SNS를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 이를테면 본인이 앞으로 전문성을 쌓고 싶은 방향이나 진로와 관련된 이미지로 운영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라고 답했다.

개성도 경쟁인 사회이다. 각자의 재능이나 잠재력 중 어느 것을 강조해 어떠한 방식으로 부각하는지에 따라 다른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한 측면에서 유튜브 채널은 자기 PR을 위한 긍정적인 수단이다. 구독자 만 명을 앞둔 그에게 채널 운영과 앞으로의 방향 등에 관하여 들었다.

유튜브 채널 ‘칩쟁이’를 소개해달라.

핵심 주제는 반도체 공학입니다. 반도체 관련 최신 이슈들에 더해 주된 구독자인 공대 대학생, 대학원생 또는 취업 준비생이 궁금해할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제가 반도체 소자 쪽으로 대학원을 진학했습니다. 대학원에서 칩을 설계하니까 칩(chip)에다 무슨 쟁이 할 때의 쟁이를 붙여서 칩쟁이라는 닉네임을 짓게 됐어요.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가 궁금하다.

제가 취업하고 나니까, 이과 학생 중 전공과 관계없이 반도체 쪽으로 취업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비전공자를 위한 반도체 강의를 찍어야겠다 생각하게 됐습니다.

또 제가 설명하는 것을 되게 잘했어요. 대학원에서 조교나 강사 알바를 하면서 저만의 설명 방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식보다 직관에 의한 설명에 강했어요. 그러한 설명이 유튜브 영상이라는 콘텐츠와도 결이 맞아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유튜브를 5년 넘게 계속하고 있다.

유튜브만의 장점이 있는지.

저처럼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최고의 취미입니다. 유튜브는 본질적으로 제 말을 듣고 싶은 사람만 오는 거예요. 현실에서 랜덤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제가 하는 말을 좋아할 것이란 보장이 없잖아요? 근데 ‘칩쟁이’를 찾는 사람들은 제 주장이 궁금해서 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도 편하고 열정적으로 제 인사이트를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지요.

시청자들과의 상호작용도 활발히 이루어지는지?

제가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면서 취업, 학술 관련 오픈 채팅방에 참여하게 됐어요. 거기서 제 유튜브 채널을 알아봐 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 영상을 본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게 되고 또 오프라인에서 모임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만난 사람들은 결국 관련 업계에 있거나 있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니까 대화도 잘 되고 인간관계를 넓히기도 수월한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전업으로 할 생각도 있는지?

기타 장차 계획이 궁금하다.

제 채널의 성장 한계는 명확해요. 학술 채널이다 보니까, 두루 좋아할 만한 콘텐츠는 아니거든요. 광고를 받지 않는 한 전업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책 광고가 들어오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신뢰도 하락이라는 리스크를 질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받지는 않았어요. 결국 유튜브는 업(業)이라기보다 제 의견을 공유하는 미디어로써 활용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제 채널 구독자의 90%가 저보다 어려요. 30대 이상이 거의 없더라고요. 대부분 사회 초년생이거나 대학생일 텐데, 제가 그 시기에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이야기들을 위주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자 해요. 대학원 고르는 방법부터 초가성비 여행지 같은 주제들 말이지요.

법학전문대학원 최승훈 학생기자

Y1 = 연구실 졸업생의 진로

A연구실(로보틱스)

Postdoc	스타트업	외국계 대기업
삼성	삼성	삼성
네이버	삼성	교수

B연구실(반도체)

Postdoc	Postdoc	Postdoc
교수	Postdoc	정출연
교수	스타트업	삼성

C연구실(컴퓨터)

외국회사	교수	엘지
Postdoc	정출연	교수
엘지		

13기 김태형

댄스 크루 멤버에서 루텐스 회장으로



16기 조현지 (뒷줄 좌측에서 다섯 번째)

그는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능력과 경험을 활용해 이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다는 열망이 강했고, 그 연장선에서 학부에서는 언론학을 전공했으며, 저널리즘뿐만 아니라 법을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어 로스쿨에 진학했다. 그런데 이런 모범적인 학생의 인생에 관해 ‘프로급의 춤 실력’이라는 요소가 하나 더 밝혀지면 어떨까? 이 흥미롭고 멋진 인터뷰 대상 학생을 만나 보자.

입학 전, 전문 댄스 크루에서 활동한 경험

조현지 학생은 120만 구독자의 유튜브 채널 ‘MORE THAN YOUTH’에 소속되어 1년 반 정도 활동했다. 이전까지는 학내 동아리나 작은 규모의 크루에서 활동했었는데, 스스로의 실력을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향상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겨 오디션 및 트레이닝을 거쳐 합류했다고 한다. 그는 활동을 통해서 ‘끈기’를 배웠다. 크루에서 유일한 비전공자 이다보니 당연히 부족한 점이 많았다. 자주 혼나기도 하고 남들보다 안무 숙지에 몇 배의 시간을 쏟아야 할 때도 있었지만, 피드백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태도를 배웠다. 그것이 로스쿨에서는 물론 일상을 살아가는 데에도 좋은 자양분이 되는 것 같다는 조현지 학생이다.



16기 조현지 (왼쪽에서 네 번째)

로스쿨 댄스 동아리 ‘루텐스’에서

오랜 기간 춤을 춰 오며 이제 ‘춤’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자신을 구성하는 큰 부분 중 하나가 돼 버렸기 때문에, 로스쿨 진학 후에도 자연스럽게 댄스 동아리에 가입하게 되었다. 바쁜 로스쿨 생활이지만, 로스쿨 댄스 동아리답게 대부분의 공연 준비는 여름방학을 활용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교생활에 별다른 부담은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다양한 컨셉에 맞춰 원작에 비견하는 수준의 안무를 재현해 낸 조현지 학생의 공연을 직접 관람하고 그 우레와 같은 합성을 들은 입장에서, 존경심마저 드는 초연함이었다. 그는 루텐스만의 특별함으로 구성원들 간의 남다른 끈끈함을 꼽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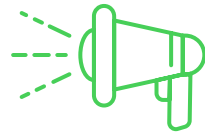
새로운 회장으로서, 앞으로의 동아리원들에게

조현지 학생은 회장이 된 계기에 관해 한 장면을 회상한다. 지난 2024년 공연 당시 여러 팀에서 팀장을 맡아서 무대를 준비했었는데, 공연이 끝나고 한 팀원이 ‘언젠가 춤 동아리에 들어가 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네 덕분에 좋은 추억을 선물 받았다’라고 고마움을 표했다. 그 말을 듣고, 앞으로도 동아리원들이 소중한 기억들을 만들어 가는 데 힘을 보태고 싶다고 생각해 회장을 맡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루텐스가 앞으로도 즐거운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춤은 잘 추는 게 아니라 ‘즐겁게’ 추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공연에서 실수했다거나, 만족스럽지 못한 무대였다는 것들은 사실 나중에는 하나도 기억나지 않고 공연을 준비하며 팀원들과 얼마나 노력했었는지, 무대 위에서 얼마나 설렘했었는지 이런 것들만이 기억에 남는다고 한다. 그래서 준비과정 및 무대에서의 즐거움을 함께 느낄 수 있는 동아리로 꾸려나가고 싶다는 것이다. 새로 들어올 신입 회원들을 향해

한 마디를 남기며 인터뷰는 끝이 났다. “팀원들과 함께 땀을 흘리며 연습하는 과정에서 쌓는 유대감, 무대 위에서 팀원들과 호흡을 맞추고 관객들의 합성을 들을 때의 벅찬 같은 것들은 오직 춤을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루텐스에 오셔서 부디 그 경험들을 함께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법학전문대학원 김민제 학생기자

비상계엄 선포 관련 법학전문대학원생 성명서 TF 참여자 인터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있었던 지난 12월 3일,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처음 마주한 충격은 서울법대 밖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였을 것이다. 그러나 예비 법조인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때 몸담았던 서울법대에서 공부하고 있는 법학도로서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은 개인적 차원에서 의견이나 감상을 가지는 데에 멈출 수 없었다. 의견을 모으고, 공론장에서 토론하고,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절차에 의해 표결하여, 우리 공동체의 이름으로 사회에 목소리를 내야 하겠다는 구성원들의 의지는 기말고사 준비에 한창이었던 시기임에도 성명서 발표의 순간까지 이어졌다. 특히 이러한 과정을 위해 잠을 줄여가며 자신의 시간을 기꺼이 희생한 성명서 TF 참여자 학생들의 노력이 빛났다. 성명서 초안을 작성하여 이후 전학대회를 통한 토론과 표결의 기초를 제공한 이들 중 한 명을 만나 보았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 아침, 우리가 해야 했던 일

최형식 학생은 여러 참여자 중 한 사람으로서 인터뷰에 참여하게 되어 영광이라며 쑥스러운 듯 웃었다. 그는 비상계엄이 있었던 밤 동안 친구들과 안부를 주고받고 이런저런 소식들을 끊임없이 나누었던 기억을 떠올리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익일 새벽, 학생들의 공식 커뮤니티인 로스쿨(LAWSNU)을 중심으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이름으로 입장문이 쓰여야 하고 그 과정의 중심에는 학생회가 있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모였다. 이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회는 학생들의 충의를 모을 수 있는 절차로서 TF를 모집하게 되었다. 최형식 학생은 많은 고민을 거친 끝에, '서울법대'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적 자아에서 나름의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하여 성명서의 필요성에 동의하게 되었다. 계엄 다음날 오전에 곧바로 TF원들이 모여 학생회장을 중심



15기 최형식

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과 들어가지 말아야 할 내용, 글을 완성하고 통과시킬 올바른 과정에 대하여 논의했다. TF에는 점차 많은 학생이 합류하여 총 32명을 이뤘다. 이들은 회의를 거치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름의 성명서는 전학대회에서 승인된 후 발표되어야 한다고 뜻을 모았고, 이에 학생회는 곧바로 전학대회 소집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무거웠던 낮과 밤, 최종 승인의 날까지

TF는 가장 적절한 최선의 초안을 완성하고자 고군분투했다. 다른 학생들의 제안과 문제 제기를 반영하여 직접 초안을 작성하는 데에 주요한 역할을 맡았던 최형식 학생은 자신의 역량에 비해 너무나 과중한 일을 맡은 마음에 크게 두려워하던 시간을 기억한다. '대표하는 글'이 완성되는 일의 무거움과 지남함을 절감했다. 그럼에도 그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 전학대회에서 성명서가 승인되던 순간을 꼽는다. 전학대회에서는 현장 발의를

통해 문장 한 줄 한 줄, 자구의 의미에 대해 토론과 표결을 거쳤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모두가 조금씩 양보하면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교육기관일 뿐 아니라, 마음을 함께 모을 수 있는 공동체임을 환기했던 순간이라고 한다. 진지한 걱정과 조언들이 있었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이름으로 쓰이는 글이 비로소 대표성을 얻을 수 있었다고, 그 진지함에 이렇게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쁘다고 최형식 학생은 말했다. 성명서를 쓴 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일을 했다고 만족하기에는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기이지만, '따뜻해서 푹푹하고, 푹푹해서 따뜻함' 존경스러운 학우들이 있어 의지가 된다고 한다. 그의 마지막 말은 다음과 같다. '수상한 시절을 우리 함께 잘 지켜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김민제 학생기자

로스쿨과 결혼, 두마리 토끼를 잡다

로스쿨 재학 중 결혼을 한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다. 학업과 각종 활동, 그리고 개인적인 삶까지 균형을 맞춰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 고민 끝에 결혼을 결심하고 1학년 학업과 결혼 준비를 동시에 해낸 16기 신재욱 원우가 있다. 쉬는 시간마다 함께 탁구를 치면서 장난기 많은 동생으로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가정을 꾸린 그를 보니 감회가 새롭다. 오히려 학생일 때 신혼 생활을 즐기고 싶었다는 그의 선택은 어떤 과정과 고민을 거쳤을까? 결혼 준비와 학업을 병행하며 얻은 경험과 깨달음을 직접 들어보았다.

로스쿨 과정에서 결혼을 결심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지금의 아내를 2023년 4월 말에 처음 만났어요. 당시 저는 로스쿨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무엇보다 아내가 정말 좋은 사람이어서 자연스럽게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죠. 만나면서 결혼에 대한 확신이 들었고, 결국 서울대학교 합격 발표가 나온 그날 밤 프러포즈를 했어요.

로스쿨 재학 중 결혼을 결정한 이유 중 하나는, 졸업 후 바쁜 직장 생활 속에서 신혼을 보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로스쿨 과정에서는 비교적 주체적으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이 시기가 결혼을 준비하기에 더 적절하다고 느꼈어요. 또한, 신혼여행을 여유롭게 다녀올 수 있다는 점, 결혼 준비 과정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다는 점도 결정을 내리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었죠.

학업과 결혼 준비를 병행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나요?

저는 MBTI가 I라서 많은 사람을 만나는 일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혼 준비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지인들을 초대하는 과정이었어요. 바쁜 학기 중에 여러 차례 청첩장 모임을 갖고 사람들을 만나야 했는데, 학업에 집중할 시간이 줄어드는 것도 큰 스트레스였죠.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지금의 아내가 큰 힘이 되어줬어요. 정신적으로 많은 지지를 해줬고, 제가 힘들어할 때는 선물로 응원해주기도 했어요. 특히 시험 기간에는 연락을 최소화하면서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줬죠. 덕분에 무사히 결혼 준비와 학업을 병행할 수 있었어요.

신혼생활과 로스쿨 생활을 조화롭게 유지하기 위해 특별히 신경 쓸 점이나 계획한 부분이 있나요?

세 가지 다짐을 했어요. 첫 번째로,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과 공부 시간을 확실히 분리하려고 해요. 계획적인 공부 시간을 정해



16기 신재욱

두고, 그 시간에는 온전히 학업에 집중할 거예요. 반대로 그 외의 시간에는 공부에서 벗어나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보내려고 해요.

두 번째로, 공부 장소를 집으로 정했어요. 원래는 열람실에서 공부했지만, 신혼생활을 고려해서 집에서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려고 해요. 이렇게 하면 함께 있는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학교 활동도 선택과 집중하려고 합니다. 이번 학기에는 법철학회 회장을 맡게 되었는데, 해당 활동에 집중하면서도 신혼생활과 균형을 맞추려고 해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로스쿨 동기나 교수님들로부터 받은 조언이 있었나요?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교수님들께 다양한 조언을 들었어요. 공통된 조언 중 하나는, 일찍 결혼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었어요. 다만, 학업 중 결혼이 불안정한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으니, 그만큼 더 집중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조언도 함께 들었어요.

그리고 이미 결혼한 한 원우가 결혼 준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부에게 맞추는 것이라는 현실적인 조언도 해주었어요. 실제로 준비를 하면서 이 말이 정말 맞다는 걸 많이 느꼈죠. 그리고 어려운 결정이었을 텐데 잘한 선택이라는 격려도 많이 받아서 큰 힘이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재학 중 결혼을 고민하는 다른 원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결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로스쿨 재학 중 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신혼여행을 2주 다녀왔고, 변호사 시험이 끝나면 더 오래 집을 비울 계획이에요. 지금 아니면 이렇게 자유롭게 시간을 활용하면서 여행을 다녀올 기회가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결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로스쿨 시기가 결코 나쁜 선택은 아닐 거예요.

법학전문대학원 이정현 학생기자

로스쿨생들의 이색 취미 생활 탐구

바쁘고 힘든 로스쿨생에게도, 아니 바쁘고 힘든 로스쿨생이기 때문에,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필요하다. 여기 모인 세 학생은 미술 전시 관람, 스포츠클라이밍(볼더링), 미식이라는 독특한 취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들의 취미 생활을 엿보며 영감을 받아 가자.



나 자신을 지탱해주는 힘, 미술 전시 관람 — 15기 강동하

여가시간을 주로 전시 관람으로 보내고, 방학에는 밀려 있던 전시들을 많이 보러 다닌다는 강동하 학생. 여행을 다닐 때에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일정이 미술관, 갤러리일 정도로 관람에 진심이다. 그는 이런 사랑의 계기로 특별한 경험을 꼽는다. 대학 입시 중 슬럼프에 빠져 학업에 집중하고 있지 못하고 있을 때 그의 아버지가 선물로 준 〈휴식〉이라는 작품을 보고,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해지고 조급함이 사라지며 다시 마음을 다잡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평범한 그림이 어떻게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해졌다.

미학 관련 도서들을 탐독하고, 대학에 입학하고서는 미학 관련 강의를 여럿 들었다. 미술사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미술 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틀을 잡았고, 이후 많은 작품들을 관람하며 개인적인 취향까지도 계발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 인류의 근원적인 불안과 허무를 길고 깡마른 형태의 인간 조각으로 표현한 자코메티의 ‘걸어가는 사람’ 조각을 보았을 때 조각이 그것을 둘러싼 공간까지도 지배하며 아우라를 발산한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후 좋아하는 미술 작품의 외연이 확장되어 조각, 영상, 설치 모두 호기심을 가지며 탐구하게 되었고, 지금은 패브릭 작품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는 전시 관람을 여행에 비유하고는 한다. 전시 내부공간은 그 자체로 비밀상적인 공간이기에 전시장에 들어가는 순간 일상의

변잡함이나 학업 스트레스를 잠시나마 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시해설을 읽다보면 자연스레 작품의 의미, 맥락, 아름다움에 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기에 비행기를 타고 멀리 떠나 있을 때와 같이 일상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나아가 배경지식을 갖추고 나면, 작품의 의미나 의도를 이해할 수 있게 되면서 원래 좋아하던 작품들은 더 좋아하게 되고, 이전에 난해하다 생각하던 작품들은 그 의도가 이해되며 보다 즐겁게 감상할 수 있다고 한다. 그는 쉽고 재미있게 미술사 전반을 훑어볼 수 있는 진중권 작가의 〈서양미술사〉, 〈미학오디세이〉 시리즈를 추천한다.

강동하 학생에게는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취미가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 학업, 업무 등 다른 부문에서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에도 의연하게 대처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는 자아성취 외에도 삶에서 큰 기쁨을 주는 요소가 있다면 역경을 마주하여서도 꺾이지 않고 중심을 잡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며, 회복탄력성을 기르기 위해 깊이 있는 취미를 하나 가지는 것을 권한다.



주어진 홀드만을 잡고 맨몸으로 완등하기 — 15기 전우영

전우영 학생은 로스쿨 운동 동아리 ‘헬로’에서 다른 학생들과 함께 일일 강습을 받으면서 처음 클라이밍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 이후, 동기들 중에 클라이밍을 취미로 하고 있는 친구가 있

음을 알게 되어 함께 다니다가 지금은 자신이 새로운 친구들을 클라이밍장에 데려갈 정도로 애정을 가진 취미활동이 되었다.

그는 클라이밍의 가장 큰 장점으로 즉각적인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운동이라는 점을 꼽는다. 어려운 문제를 여러번 시도해서 완등에 성공하거나, 이전보다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풀 수 있게 되었을 때 엄청난 ‘도파민’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여러 친구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점도 좋다. 실력 차이가 많이 나면 함께 하기 어려운 운동들도 있는데, 클라이밍은 하나의 암장에 다양한 난이도의 문제가 공존하다보니 평소 운동 실력이나 신체 기량의 차이와 무관하게 같이 즐길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부상 위험에 주의해야 한다는 조언을 남겼다. 맨몸으로 하는 운동이다 보니 잘못 추락하는 경우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그는 항상 안전에 유의하면서 등반하고 있다.

바쁜 로스쿨 생활이지만, 학기 중에는 주 1회, 시험 기간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빈도를 줄이면서 꾸준히 클라이밍을 이어오고 있다. 아무래도 올해는 3학년으로 진학하다 보니 횟수가 줄지 않을까 한다. 그래도 대부분의 시간을 책상에 앉아있으므로, 그 와중에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운동이 하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전우영 학생이다. 다치지 않게 조심하면서, 올해도 꾸준히 클라이밍을 즐겨보려고 한다.

삶을 살아가며 스쳐 지나가는 환희를 소중히 여기기 — 15기 김진태

“안녕하세요, 이런저런 취미가 있지만 음식을 맛보고 감상하는 걸 가장 좋아해요.” 김진태 학생은 궁금하던 식당을 혼자 다니며 맛, 향, 매장의 분위기 등에 대한 감상을 기록하고 사진으로 남긴다. 특히 맥주에 재미를 느껴서, 맥주 시음 노트만으로도 거의 천 페이지 넘게 쌓였는데, 초심자에게는 바틀샵 ‘와인앤모어’를 추천한다고 한다. 그가 미식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학부 2학년 시절 스페인 여행 중에 찾아 왔다. 미술쟁 별을 받은 식당에 처음으로 가 보았는데, 2시간 동안 잘 짜인 하나의 공연을 감상한 듯한 느낌을 받았다. “식이야말로 오감을 다 사용하는 종합예술이구나...”라며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생생하다. 그 이후로 단순 ‘섭취’를 넘어 ‘감상’하며 음식을 즐기려 노력하다 보니 자연스레 미식이 취미가 되었다고 한다.

본인의 취미의 장단점을 꼽아달라는 질문에 김진태 학생은 최소 점심, 저녁 하루 두 번은 즐겁고 행복할 수 있다는 점을 특장점으로 꼽았다. 음식에 진심을 다하다 보니 꼭 대단한 맛집을 가지 않더라도 매 끼니가 소중해지고, 더 즐기게 되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맛이 나거나, 맛을 곱씹어 볼수록 새로운 맛과 향이 느껴지거나 할 때 느껴지는 즐거움과 환희는 ‘살아야만 할 이유’처럼 다가온다. 단순한 감각적 즐거움 이상으로, 그런 순간의 감정적 동요가 나름의 개인적 사유나 깨달음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먹을 것에 대한 감상이 내적 성장의 단초가 될 수도 있음을 느낄 때 참 좋다는 김진태 학생의 말을 들으며, 먹기 위해 사는지 살기 위해 먹는지를 고르라는 이분법적인 질문은 진정한 식(食)의 의미를 알려주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만, 단점은 무한정 먹을 수는 없다는 사실이라고. 그는 건강 관리에 신경을 쓰면서 과하게 먹지 않도록 신경을 쓰고 있다. 특히 맥주는 술인 만큼, 양과 횟수를 정해서 적당히 즐기고 있다.

김진태 학생은 무슨 음식이든 맛과 향을 새삼스레 느끼려 노력하면 생각보다 다양한 맛이 나고, 생각보다 낯설고, 또 생각보다 맛있다고 말한다. 음식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며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것들이 생각 이상으로 큰 즐거움과 행복을 잠재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로스쿨처럼 ‘대단한 취미’에 오랜 시간을 쏟기 어려운 환경에서야말로, 주변에 항상 존재하는 대상들로부터 가치를 발견하고 취미를 들이려는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 김민제 학생기자

법 학 전 문 대 학 원

소 식

2025학년도 입학설명회 개최

2024년 9월 2일(월) 근대법학교육 백주년기념관 주산홀에서 2025학년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설명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이재민 원장, 허성욱 교무부원장, 공두현 학생부원장 등 보직교수들이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소개와 함께 16년 간 입학생 현황, 2025학년도 신입생 선발계획 등을 설명하였고,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홍보대사들이 학생 생활에 관하여 소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사전 접수 후 참석 확인 문자를 받은 선착순 대상자에 한정하여 총 220명의 인원이 참석하였다.



2024년 서울법대 한마당

지난 9월 3일(화) 법학전문대학원 17동 앞 중앙광장에서 ‘2024년 법대한마당’ 행사가 개최되었다. 법과대학 시절부터 이어진 법대한마당은 구성원들이 유대감을 느끼고 바쁜 생활에 심표를 찍는 행사로, 출장 뷔페 전문인력들이 질 좋은 바비큐를 선보인 가운데 이재민 원장을 비롯하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생 및 직원 등 서울법대 구성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담소를 나누고 식사하였다. 이번 행사의 행사장 한편에는 트럼펫린이 설치되어 학생들이 학업 부담을 잠시 내려놓고 동심으로 돌아가는 기회도 마련되었고,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자치단체인 ‘공익기금’에서는 부스를 설치하여 슬러시를 판매하고 수익 일부를 공익변호사 지원기금 등에 적립하여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UC Law SF 방문단,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방문

2024년 9월 20일(금)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샌프란시스코 로스쿨(University of California College of the Law, San Francisco; UC Law SF)의 방문단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방문하였다. 해당 학교는 현직 미국의 부통령이자 미국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가 졸업한 로스쿨으로, 학장 David Faigman, 부학장 Binyamin Blum, 비서실장 Jenny Kwon, 입학처장 June Sakamoto로 구성된 이번 방문단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단과 양교간의 다양한 학술 교류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서울법대 국제학생 오리엔테이션 개최

2024년 9월 24일(화) 17동 108호에서 국제학생들을 환영하는 오리엔테이션이 열렸다. 이날 행사는 간단한 프레젠테이션 이후 피자과 함께 담소를 나누도록 진행되었다. 외국 학교 학부생으로서 로스쿨 교환학생으로 파견된 국제학생부터 박사과정 연구 펠로우 참석자까지, 다양한 국적과 경험이 한 데 모여 서울법대 구성원으로서 유대감을 가지고 앞으로의 법대 생활을 서로 응원하는 시간이 되었다.

ANU(호주국립대) 법과대학 부학장, 서울대학교 법전원 방문

2024년 9월 25일(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7동 원장실에서 이재민 원장과 호주국립대학교(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ANU) 법과대학의 Will Bateman 부학장 간 만남이 이뤄졌다. Will Bateman 부학장은 금융 시장, 경제 기구, 첨단 기술 및 공공 행정의 법적 측면에 관하여 활발히 연구하고 있고, 최근에는 인공지능 규제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연구자이다. 이날 만남에서는 양교간 학술 교류 및 일반 학술 교류 확대를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제13회 학생 홍보대사 임명식

2024년 11월 6일(수) 17동 2층 접견실에서 제13회 학생홍보대사 임명식이 진행되었다.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강소영, 김정현, 이권영, 정다혜 학생이 홍보대사로 임명되었으며, 이들은 앞으로 1년 간 입학설명회, 국제교류 외빈방문을 포함한 학교 행사를 지원하게 된다. 임명식은 임명장 증정과 단체사진 촬영으로 이루어졌다.



2024년 가을맞이 점심

2024년 11월 11일(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암관에서 ‘2024 가을맞이 점심’ 행사가 열렸다. 법학전문대학원, 일반대학원 법학과 학생, 교수진, 직원을 포함한 모든 법대 구성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스태핑 파티로 진행된 식사 자리에서는 많은 구성원이 자유롭게 자리를 오가며 담소를 나누었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대학교 성악과 전승현 교수의 축하 공연이 있었다. 이재민 원장은 “캠퍼스에 가득한 가을 기운을 함께 즐기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는 인사를 전하였다.



제5회 서울법대 모의법정 대회 개최

2024년 11월 11일(월) 근대법학교육 100주년 기념관 주산홀에서 “제5회 서울법대 모의법정대회”를 개최하였다. 로스쿨 실무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들에게 법정 변론 경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최된 이번 대회에서는 <모의재판> 교과목을 수강하는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재학생 전원이 3-5인씩 팀을 이루었고 예선과 본선을 거쳐 최종

2팀이 결승전에 참여하였다. 결승전에 오른 원고 변호인단(김미성 팀장, 김인서, 박지후, 윤성배, 황지현)과 피고 변호인단(최성광 팀장, 노소영, 백인범, 정윤중, 최승우)은 재판부인 전원열 교수, 김재형 교수(前 대법관)와 권영준 대법관(前 교수) 앞에서 열띤 경연을 벌였다. 대상(우승)은 원고팀이, 금상(준우승)은 피고팀이 차지하였다. 최우수변론상은 피고팀의 백인범 원우가 수상하였다. 이번 모의법정대회 문제는 원고(자녀) 측이 피고(친부)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내용이었다. 주로 친생추정 법리의 의의와 본질, 인공수정 출산 가정의 가족관계에서 자의 복리 등이 쟁점이 되었다. 재판장을 맡은 김재형 전 대법관은 강평에서 “아직 한 번도 다루어지지 않은 사안에 관한 양측 변호인단의 변론과 서면 모두 실마리가 못지 않게 훌륭하며, 앞으로도 법학 공부에 정진하기를 바란다”라며 참가팀들을 크게 격려했다.



인도네시아 방문단, 서울대 법전원 방문

2024년 11월 13일(수) 인도네시아 대학교(Universitas Indonesia)의 Hadi R. Purnama 교수 및 교수진, Ms. Tentiana Rusbandi를 포함한 인도네시아 투자청(Ministry of Investment) 방문단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방문하였다. 인도네시아 방문단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앞으로의 학술 교류 방안을 논의하였다고, 한국의 해외기업 투자 체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다.



박윤해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1천만원 기부

박윤해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1천만원의 기부금을 쾌척하였다. 이에 2024년 12월 5일(목) 이재민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허성욱 교무부원장, 공두현 학생부

원장, 전원열 법학연구소장 등 주요 교내인사들이 참여하여 박윤해 대표변호사에게 감사를 표시하였다. 이재민 원장은 “모교에서 전달해주신 기부금을 지성과 품성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소중히 운용할 것”이라고 감사인사를 전달하였다. 박 대표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 출신으로,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8년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 검사로 임관했다. 이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청주지검 제천지청장,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2017년 울산지청장, 2018년 대구지청장을 역임하며 22년간 검찰에서 근무했다. 2019년 퇴임 후 법무법인 백송의 대표변호사로 활발하게 활동 중으로, 백송은 법원과 검찰 출신 변호사 등 20여 명의 변호사로 구성돼 있다.



제9회 학봉사 개최

지난 12월 5일(목),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목련홀에서 2024년 제9회 학봉사 시상식이 개최되었다. 학봉상은 재일동포 실업가였던 故학봉 이기학 선생을 기리기 위하여 제정한 상으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주최하고 재단법인 학봉장학회가 후원한다. 이날 학봉상은 논문공모·연구지원 부문, 법학논문 부문, 언론보도 부문의 세 부문으로 나누어 시상하였다. 논문공모 부문은 한국사회와 젠더를 주제로 다양한 분야의 논문을 공모하여 장려상 3편을, 연구지원 부문에서 장려상 2편을 선정하였다. 시상식에서는 연구논문 부문 장려상을 수상한 사사노 미사에(이바라키 대학 인문사회과학부 현대사회학과 전임강사)의 “한국의 저출산과 젠더 혁명: 한일 비교를 통해 본 한국 여성의 생애 혁신”, 김선화(서울가정법원 판사, 서울대학교 법학과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의 “성인지 감수성은 젠더편향적 기준인가?-형사재판에서의 ‘합리적 의심’에 대한 재검토를 중심으로”, 우춘희(매사추세츠 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의 “젠더 관점으로 본 고용허가제”, 연구지원부문 장려상을 수상한 정성조, 이희영, 김보미, 심기용의 “성소수자의 노동권 및 차별에 관한 연구”, 정민석, 조은미, 박지영의 “여성의원의 여성대표성에 관한 연구: 제17대-제21

대 국회 여성법안 발의 및 표결을 중심으로” 발표가 진행되었다. 법학논문 부문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고자 전국 25개 법전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유주제로 논문을 공모하였다. 대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3편이 선정되었다. 시상식에서는 법학논문 부문 대상을 수상한 천시훈(한양대 법전원)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산정에 관한 실증 연구”의 발표를 들 수 있었다. 법학논문 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김상균, 박상현, 이정민(서울대 법전원) 및 김지훈, 김동현, 최용석(서울대 법전원)의 각 논문 발표도 이어졌다. 언론보도 부문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한일관계 개선과 상호 이해 증진에 기여한 언론보도 및 언론인을 추천받아, 엄정한 심사를 거쳐 대상 1건, 우수상 1건을 선정하였다. 언론보도 부문 대상으로 한국일보 서현정, 고경석, 남보라, 양승준, 이상무, 김경준, 신은별, 김형준, 문재연 기자의 “한일 맞서다 마주서다”가, 우수상으로는 주니치도쿄신문 키노시타 다이ске 기자(전 서울지국 특파원)가 수상하였다. 시상식에서는 수상자들의 소감과 수상작 발표가 이어졌다. 시상 및 소감 발표가 끝난 후에는 2025년 제10회 학봉상의 주제 발표 및 공모가 있었다. 심사위원 및 수상자들은 오찬을 함께하며 축하를 나누었다. 2024년도 제9회 학봉상은 논문공모·연구지원부문에 한국여성학회, 한국사회학회의 협조를, 언론보도부문에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의 후원을 받아 개최되었다.



2025학년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개최

2024년 12월 19일(목) 서울대학교 근대법학백주년기념관 주산홀(84동 301호)에서 ‘2025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열렸다. 2025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전문석사 과정)의 입학을 환영하는 이날 행사는 이재민 원장의 인사를 시작으로 약 한 시간 동안 학생부원장의 교과과정 및 학생복지 안내, 서울대 로스쿨 학생홍보대사와 학생회의 학교생활 소개 등으로 이루어졌다. 행사 후 학생회 주관으로 학내에서 신입생과 재학생이 조별로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각 조별로 저녁식사를 함께하는 행사가 진행되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16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자유상 등 수상

2025년 1월 21일(화)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개최된 제16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에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종합점수 1위에게 수여되는 자유상을 수상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이날 경연대회 본선에 진출한 민·형사 부문 각각 4조로 구성된 16개 팀이 법정 변론을 펼쳤고, 이후 각 조 1위를 차지한 민·형사 부문 각각 4개 팀 총 8개 팀이 결선에 진출하였다. 그 결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민사 부문 최우수변론상(서혁진), 민사 부문 2위(서혁진, 유각준, 김예은), 형사 부문 2위(김신엽, 오예슬, 윤솔)를 차지하였고, 본선 및 결선 입상 결과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 결과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단체 1위(자유상)를 차지하였다.

2025학년도 전기 법학전문대학원 학위수여식 개최

2025년 2월 26일(수) 오후 4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위수여식이 음악대학 콘서트홀에서 열렸다. 식은 이재민 원장의 인사 말씀으로 시작되었다. 강용현 법대 동창회장의 축사와 졸업생 대표 2인의 답사가 이어진 뒤에는 참석한 졸업생에 대하여 학위 수여와 성적우수상 등의 상장 수여가 진행되었다. 이재민 원장은 사회로 나갈 졸업생들을 격려하고 사람들이 도움을 구하는 따뜻한 법조인의 자세를 갖추 것을 당부했다. 법학전문대학원 14기 송현정 졸업생은 스승과 동료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도 이 사회에 진정으로 필요한 법조인으로서의 포부를 밝혔다.



2025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식 및 타종 행사 개최

2025년 2월 27일(목) 84동 주산홀에서 ‘2025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는 공두현 학생부원장의 개식선언, 국민의례, 교수 소개, 이재민 원장의 식사, 교가 제창 순으로 이루어졌다. ‘SNU Law 합창단’과 ‘공연음

악직(교내 기악부)’가 축하공연으로 신입생을 맞이하며 뜻깊은 순간을 함께했다. 이날 입학식은 많은 신입생과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끝났다. 입학식 후 본교 정의의 광장에서 타종행사가 진행되었다. 이 행사는 2024학년도 입학식부터 시작된 전통으로, 입학생들이 울려 퍼지는 종소리를 통해 법조인으로서의 책임과 소명을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법전원 원장단과 학생 대표들이 타종을 한 뒤, 조별로 정의의 종 앞에서 기념 촬영을 진행했다. 이후 조별 지도교수진과 함께 법대 세미나실에서 조별 모임을 가지며 입학식 행사를 마무리했다.

연구소·센터 소식

공익법률센터, 아시아 임상법학 협력과 공익진로 지원 국제컨퍼런스

공익법률센터(센터장 이우영)는 2024년 12월 6일(금) 최종길홀에서 “아시아 임상법학 협력과 공익진로 지원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공익법률센터의 개소 5주년을 맞아 센터의 중요 사업인 임상법학 및 공익진로 지원과 관련한 국내외 전문가를 모시고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제1세션은 공익진로지원에 대한 세션으로 공익분야에서 종사하는 변호사들의 심층인터뷰를 바탕으로 로스쿨 공익인권교육의 현황과 개선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2세션은 아시아지역 6개국(중국, 일본, 필리핀, 몽골, 튀르키예, 한국)에서 임상법학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진을 초청하여 각국의 법학 교육 및 임상법학의 현황 및 과제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 행사를 통하여 아시아 지역 임상법학 담당자들의 네트워크를 구성할 교두보가 마련될 수 있었다.



공익법률센터, 제6회 동계공익법무실습 보고대회 개최

2025년 2월 20일(목)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는 동계공익법무실습 보고대회를 개최하였다. 1학년 학생 157명(학교배정 2명 포함)은 환경, 의료건강, 이주난민, 지역사회 법률구조, 청소년, 여성, 장애, 공정거래, 소비자, 노동, 소상공인, 정보인권 이슈를 다루는 32개의 공익기관에서 약 2개월간 법무실습을 진행하였다. 이재민 원장(서울대 법전원)의 인사말로 시작된 보고대회에서는 각 팀의 발표와 14개 팀에 대한 시상(우리고장상, 럭키빅기상, 친친상, 광역봉사상, 아침이슬상, 희망찾기상, 탐사상, 고객만족상, 글로커상, 발표상)이 이루어졌다. 참가 학생들은 공익법무실습을 통해 단순히 법률적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중요한 역할이 무엇인지 깨닫는 경험이었다며, 법이 어떻게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었다는 소감을 발표하였다. 이우영 센터장(서울대 법전원)은 공익법무실습을 통해 학생들이 앞으로 법조인으로서 진로의 동기부여와 자양분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를 격려하며 동계공익법무실습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한국법제연구원 국제학술대회 개최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소장 허성욱)는 2024년 9월 27일(금) 한국법제연구원과 함께 공동으로 서울대학교 15-1동 우천법학관 203호에서 “글로벌 순환사회전략과 국내외 과제(Global Circular Society Strategies and Domestic and International Issues)”라는 주제로 한국법제연구원-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 연구소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회의에서는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 원장이 개회사를(이순태 부원장이 대독), 본 연구소 허성욱 소장이 환영사를, 글로벌 녹색성장기구(GGGI) 신경남 사무차장보가 축사를 전했다. 회의에서는 순환경제 관점에서 보는 각국의 에너지 자원 법적체계, 플라스틱 규제, 생물다양성협약 등 여러 가지 세션으로 발표를 진행하여 비교법적 토론과 함께 국내법적 과제에 대한 열띤 토론의 자리를 가졌다.



학문후속세대양성센터 제5기 SNU Law 연구자 포럼 및 SNU Law 미래연구자포럼 출범

2024년 11월 2일(토) 서울대학교 우천법학관에서 서울법대 학문후속세대양성센터(센터장 천경훈 교수)가 주최하는 SNU Law 연구자포럼 제5기 출범식이 개최되었다. 실무 및 잠재적 연구자들의 연구 및 논문 작성을 지원하는 SNU Law 연구자포럼 제5기 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본 출범식에서, 천경훈 교수는 법학 연구에 대한 열정을 갖고 연구자포럼에 참여하게 된 연구자들을 축하하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하여 연구자로서 성장해나갈 수 있기를 격려했다. 헌법, 법사회학, 법철학, 국제법, 상법 등 다양한 전공분야의 연구자포럼 참가자들은 1년 동안 학문후속세대양성센터의 지원을 받으며 활동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5년 1월 11일(토) 같은 센터가 주최하는 2025년 SNU Law 미래연구자포럼 출범식이 개최되었다. 이는 졸업 필수요건이 아님에도 학문적 관심에서 자발적으로 석사학위논문을 작성하고자 하는 로스쿨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약 30명의 학생이 참여하여 졸업한 선배들의 경험담을 들으며 연구 의지를 새로이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지원센터, 2024년 교육펠로우 신규 임용

2024년 2학기 교육지원센터(센터장 이동진) 교육펠로우 신규 임용이 이루어졌다. 강윤구 펠로우(변시 9회)는 서울대 경제학부 및 수리과학부와 서울대 법전원을 졸업하고 서울고법 재판연구원을 거쳐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근무했다. 김소연 펠로우(변시 9회)는 서울대 자유전공학부(경영학 및 인류학)와 서울대 법전원을 졸업하고 법무법인 율촌에서 변호사로 근무했다. 이영경 펠로우(연수원 47기)는 서울대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근무했다. 최세중 펠로우(변시 9회)는 서울대 경영학과와 고려대 법전원을 졸업하고 춘천지법 및 서울고법 재판연구원

을 거쳐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로 근무했다. 신규 교육펠로우는 1학년 펠로우세션, 3학년 실무연습 강의 지원,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제15회 모의국제상사중재경연대회 개최

2025년 2월 22일(토) 개최된 제15회 모의국제상사중재 경연대회(2025 Seoul Vis Pre-Moot)에서 SNU Vis Moot팀 이권희, 권보경, 김동현, 노시현, 서동윤, 조형근으로 구성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팀이 우승, 연세대 YIAA팀이 준우승을 차지했다. 개인상 부문에서는 고병욱(연세대)이 결승 최우수변론상을 수상하였고, 4강 우수변론상은 Jinyu Xiong(Dalian Maritime University)과 박지향(연세대)이 공동 수상했다. 본 대회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Willem C. Vis Moot Competition(비엔나 및 홍콩)의 출제 사안을 활용하여 진행되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국제대회이다. 국내 주요 로펌 소속 중재 전문 변호사들과 중재 전문가 교수들이 모의중재인으로 참여하여 실무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본 대회는, 참가 학생들이 국제상사중재 절차를 예비 경험하고 미래의 국제중재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서울대 아시아태평양연구소,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실무회가 공동 주최하며, 서울대 국제통상·거래법센터가 주관하였다. 또한 법무법인 광장, 김·장 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 베이커맥켄지 앤 케이엘파트너스,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에이펙스, 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지평, 법무법인총정, 법무법인 케이씨엘,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피터앤김, 법무법인 화우 등 국내 주요 로펌들이 후원하여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했다.



금융법센터, 제1회 BFL 콜로키움 개최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센터장 노혁준)는 2025년 1월 13일(월)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제1회 콜로키움

을 진행하였다. 최지웅 변호사(한국예탁결제원)와 이정수 교수(서울대 법전원)가 발표를 맡아주었고, 노혁준 센터장과 서울대 법전원 교수를 포함한 학계 연구자, 예탁결제원 및 법무법인 소속의 실무자 그리고 신진교수가 참여하여 토론의 자리를 가졌다.



공익산업법센터, 제96회 학술세미나 개최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센터장 이원우)는 2024년 9월 6일(금) “디지털 심화 시대 공공부문의 혁신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권현영 교수(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방국봉 객원교수(연세대 법무대학원), 김태오 교수(국립창원대 법학과)가 발표를 맡고, 이진수 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 선지원 교수(한양대 법전원), 구태연 변호사(법무법인 릐), 성석함 실장(SKT), 정지연 사무총장(한국소비자연맹), 서보람 단장(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이 참석하여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제16회 국제인권 공개강좌 개최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센터장 최계영 교수)와 공익법률센터(센터장 이우영)는 2024년 9월부터 11월까지 총 8주 과정으로 제 16회 국제인권 공개강좌를 공동 개최하였다. 이 강좌는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국제적 인권 현안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자 기획되었다.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익법률센터 소속 교수들, 그리고 각 분야 전문가들이 국제적 인권 현안에 대하여 서로 다른 8개의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다양한 대학과 전공의 학생들이 국제 인권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였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약 60명의 학생들이 이 본 과정을 수료하였다.



법과경제연구센터, ‘AI 주권과
글로벌 정합성’에 관한 국제심포지엄 개최

법과경제연구센터(센터장 임웅)는 2024년 11월 27일(수) 르메르디앙 명동(미드센추리홀)에서 ‘AI주권과 글로벌 정합성(Future of AI Governance: Sovereignty and Interoperability)’을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임웅 센터장과 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이 AI주권 확립의 중요성과 방향에 관하여 오프닝을 하였고, 첫 세션은 ‘EU 모델과 브뤼셀 효과’를 주제로 EU AI법의 설계를 담당했던 가브리엘레 마찌니(Gabriele Mazzini) 박사의 기조 발표와 국내전문가들과의 대담으로 진행되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부상하는 대안 모델과 AI주권’을 주제로 ‘텔라비브 효과’를 주창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테힐라 알트슐러(Tehilla Shwartz Altshuler) 박사, 싱가포르IMDA에서AI 거버넌스 분과를 이끌고 있는 라리사 림(Larissa Lim) 총괄, 그리고 일본 교토대학의 마사오 와쿠이(Masako Wakui) 교수의 기조 발표를 들은 후 우리나라 AI안전연구소의 김명주 초대 소장이 참여하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토론 패널이 진행되었다.



법이론연구센터, 제4회 율촌·온을
기초법학 논문상 시상식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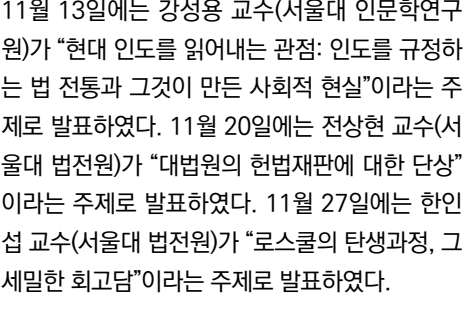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이론연구센터(센터장 김도균)가 2025년 2월 7일(금) 법무법인 율촌 렉처홀에서 ‘제4회 율촌·온을 기초법학 논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우수상 3편과 장려상 3편 등 6편의 수상작에 대한 시상식이 이뤄졌다. 심사를 총괄한 김도균 센터장은 “수상작 여섯 편은 고전의 재해석에 충실하면서도 법의 새로운 흐름을 잘 보여주었다”며 수상 이유를 밝혔다. 김 센터장은 “우리 사회의 법적 쟁점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를 위해 기초법학 분야의 연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학문후속세대의 기초법학 역량을 증진하고 세대간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이론연구센터는 논문상 수상작

을 포함, 기초법학 분야의 신진 연구 장려를 위해 매년 학술지 <기초법학연구>를 발간하고 있으며, 2025년 제4호는 5월에 발간될 예정이다.



법학연구소, 2024년 2학기
「법과 문화 포럼」 개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소장 전원열 교수)는 2024년 9월부터 11월까지 총 9회에 걸쳐 각계 전문가를 초청하여 「법과 문화 포럼」을 개최하였다. 9월 11일에는 윤진수 명예교수(서울대 법전원)가 “제사주재자의 결정—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9월 25일에는 최정균 교수(KAIST 바이오및뇌공학과)가 “유전자 사회주의, 그리고 법과 윤리”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10월 2일에는 천명선 교수(서울대 수의학과)가 “인간 동물관계를 통한 동물에 대한 인식 전환”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10월 23일에는 강은경 대표이사(서초문화재단)가 “법과 예술: 예술법과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10월 30일에는 김선수 석좌교수(사법연수원, 전 대법관)가 “대법원 재판, 역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발언 살펴보기”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11월 6일에는 최준규 교수(서울대 법전원)가 “In dubio pro misero: A small politics of judicial interpretation –From Korea’s Perspective–”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11월 13일에는 강성용 교수(서울대 인문학연구원)가 “현대 인도를 읽어내는 관점: 인도를 규정하는 법 전통과 그것이 만든 사회적 현실”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11월 20일에는 전상현 교수(서울대 법전원)가 “대법원의 헌법재판에 대한 단상”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11월 27일에는 한인섭 교수(서울대 법전원)가 “로스쿨의 탄생과정, 그 세밀한 회고담”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법학연구소, 2024학년도
공동연구 학술대회 개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소장 전원열 교수)는 2024년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다양한 주

제의 공동연구 학술대회를 연달아 개최하였다. 먼저 2024년 12월 13일(금) “비영리단체의 법적 규율”이라는 제목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연구책임자 이동진 교수(서울대 법전원)를 비롯하여 윤지현 교수, 이상상 교수, 이성범 교수, 이상훈 교수(이상 서울대 법전원)가 발표하였다. 다음으로 2025년 1월 23일(목) “한국 민법개정안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연구책임자 김재형 교수(서울대 법전원)를 비롯하여 최봉경 교수, 최준규 교수, 고유강 교수(이상 서울대 법전원)가 발표하였다. 1월 24일(금)에는 “인권, 고유성, 평등”이라는 제목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연구책임자 최계영 교수(서울대 법전원)를 비롯하여 이우영 교수, 신윤진 교수, 홍진영 교수, 공동현 교수, 고명수 교수(이상 서울대 법전원), 송지우 교수(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이주영 연구교수(서울대 인권센터)가 발표하였다. 마지막으로 2월 14일(금) “1987년 헌법개정에 관한 연구—총론 및 총강”이라는 제목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연구책임자 전종익 교수(서울대 법전원)를 비롯하여 이효원 교수, 전상현 교수, 조동은 교수(이상 서울대 법전원)가 발표하였다.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 2024 ESG
컴플라이언스 리더십 세미나 개최

서울대학교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센터장 조홍식)는 2024년 10월 16일(수),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공동 주최하는 [2024 ESG 컴플라이언스 리더십 세미나]를 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 김상협 위원장(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 기조연설을 하였으며 제1부에서 정준혁 교수(서울대 법전원)가 ‘ESG 규제, 압박의 채널과 기업의 리스크 관리’, Michele Mannucci 부사장(ABB 에너지 산업 담당)이 ‘글로벌 기업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업전략’을 강연하였다. 제2부에서는 김남희 실장(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국내 공급망실사 대응 핵심내용 및 정부의 기업 지원사업’, Michael Burian 파트너(글라이스 루츠, 독일로펌)가 ‘EU, 독일 공급망 실사와 기업 리스크 관리’, Christina Namkyung 상무(바스프(주) China, 아태지역 구매담당)가 ‘글로벌 화학기업의 선도적인 공급망실사 대응사례’를 주제로 강연하였다.

릴레이
도서 추천

릴레이 도서 추천은 법대 구성원들이 고민하면서, 때로는 휴식하면서
읽을만한 책을 여러 교수들이 차례로 추천하는 특집입니다.

천경훈 교수



이반 일리치의 죽음	역사 앞에서	트러스트	개미들의 변호사, 배짱기업과 맞장뜨다
〈전쟁과 평화〉〈안나 카레니나〉를 아직 읽지 않았고 앞으로도 당분간 읽을 것 같지 않은 분들이라면 100면이 안 되는 이 중편으로 톨스토이를 영접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직업인으로서나 자연인으로서나 크게 나무랄 데 없고 모자랄 것 없는 삶을 살던 이반 일리치 판사가 갑자기 심한 통증 속에 죽음을 향해 끌려가며 인생을 돌아보는 이야기. 어떤 가치를 가슴에 품고 어떤 태도로 일과 사람과 인생을 대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묵직한 질문을 던진다.	서울대 사학과 교수이던 저자의 6.25 일기. 인민군의 점령, 국군의 수복 등 시대의 격동을 겪어내는 지식인의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진다. 인민군 치하에서 거들먹거리는 좌익들과 수복 후 서울에 돌아오자마자 부역자 색출에 나서는 우익들의 묘사가 담담하지만 통렬하다. 나중에 미화되지 않은 당대의 생생한 기록이라는 점에서 재미도 있고 의미도 크다. 부산 피난지에서 남의 집 마루를 빌려 서울법대생들 상대로 강의하다가 눈물을 쏟는 장면을 놓치지 말 것.	대공황 무렵 자본시장에서 큰돈을 번 한 부부에 관한 네 개의 이야기. 전혀 다른 네 인물이 전혀 다른 문제로 기록한 네 개의 내려티브가 하나의 소설을 이룬다. 서로 어긋나는 얘기들을 읽으며 진실이 뭘까 궁금해하다가 마지막 이야기에서 진실을 만나지만, 그것이 100프로 진실일까 싶은 의구심이 아주 없어지지는 않는다, 탁월한 구성의 작품. 문체를 느끼기엔 영어본이 좋지만 한글 번역도 훌륭하다. 다만 말미의 ‘역자의 말’은 스포일러이니 먼저 읽지 말 것.	1990년대 말부터 소액주주 운동을 해온 김주영 변호사의 경험을 담은 논픽션. 제목이나 표지 그림보다 훨씬 진지한 책이다. 허위공시, 분식회계, 주가조작 등 여러 사건에서 주주들을 대리하며 겪은 기쁨과 슬픔, 보람과 화한이 솔직하게 그려진다. 9개의 장에서 하나씩 다루는 9개의 사건 이야기들은 회사법과 자본시장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생생한 자료가 되고, 법률가의 사회적 소명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참고할 모델이 되어 줄 것이다.
톨스토이/김연경 옮김 민음사 2023	김성철 창비 2018 (초판 1993)	에르난 디아스/강동혁 옮김 문학동네 2023	김주영 문학동네 2014

SNU Law 人 캠페인 안내

SNU Law 人 캠페인은 매월 1만 원(1구좌)으로 서울법대를 후원하는 정기후원 캠페인이자,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서울법대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 SNU Law 人 기금은 이렇게 사용됩니다.

사회공헌기금 – 공적마인드를 갖춘 법률가 및 사회적 리더의 자격을 갖춘 서울법대 人 양성
교육장학기금 – 국제 경쟁력을 갖춘 서울법대 人 양성
학술연구 – 미래지향적인 법학 연구를 통해 세계 수준의 연구자로서 서울법대 人 양성
일반기금 – 서울법대 교육 및 인프라 구축

• SNU Law 人에게 드리는 혜택

- 세 제 혜택
지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부금액의 15%를 세액공제
- 네이밍 예우
서울법대 홈페이지, 정의의 종 등에 기부자 명단 게재
- SNU Law Family 머그컵 증정
1만 원(1구좌) 이상의 정기후원을 약정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SNU Law Family 머그컵 증정

• SNU Law 人 캠페인 참여방법

- 온라인 기부페이지(신용카드, 계좌이체, CMS 신청가능)
 - http://secure.donus.org/snulaw
 -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연결 됩니다.



- 전화·이메일
 - 전화. 02.880.2448
 - 이메일. lawgiving@snu.ac.kr
 - 카카오톡. snulawfund

Next Decade 기금 (발전기금) 안내

서울법대의 미래는 당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약정 문의

• 전화·이메일

전화·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출연에 대한 자세한 상담 후에 약정이 진행됩니다.

• 방문

방문해 주시면 출연에 대한 자세한 상담 후에 약정이 진행됩니다.

전화. 02.880.2448

팩스 . 02.889.7196

이메일. lawgiving@snu.ac.kr

주소.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7동 615호

세제 혜택

• 개인기부자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부금액의 15%를 세액공제 (기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세액 공제)

• 법인기부자

당해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 인정

•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세제혜택 비교

서울대학교발전기금에 기부 시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지정기부금에 비해 더 높은 공제한도를 적용 받습니다.

구분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내용	사립학교, 국가지방단체, 이재민을 위한 구호물품 등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사회복지, 문화예술, 종교단체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지정한 단체에 기부한 기부금	
공제한도	개인	법인	개인	법인
	소득금액의 100%	소득금액의 50%	소득금액의 30%	소득금액의 10%
해당기관	서울대학교발전기금		여타 기관	

법 학 발 전 재 단 및 발 전기 금 출 연 현 황

2024. 9. 1. — 2025. 2. 28.

김효준	10,000	2024.09.05	이지영	10,000	2024.09.06	윤아현	10,000	2024.09.06
홍성혜	10,000	2024.09.05	김연각	10,000	2024.09.06	이창규	10,000	2024.09.06
박정현	30,000	2024.09.05	정철호	10,000	2024.09.06	유석호	50,000	2024.09.06
김준영	50,000	2024.09.06	김정민	10,000	2024.09.06	이현선	50,000	2024.09.06
석소현	10,000	2024.09.06	강윤구	10,000	2024.09.06	오테옥	100,000	2024.09.06
김국태	10,000	2024.09.06	이종준	10,000	2024.09.06	박진호	10,000	2024.09.06

김지수	10,000	2024.09.06	유석호	50,000	2024.10.05	이현선	50,000	2024.11.05
김다연	30,000	2024.09.06	이현선	50,000	2024.10.05	오테옥	100,000	2024.11.05
박은정	10,000	2024.09.06	오테옥	100,000	2024.10.05	박진호	10,000	2024.11.05
박상록	10,000	2024.09.06	박진호	10,000	2024.10.05	김지수	10,000	2024.11.05
재단법인 일우재단	100,000,000	2024.09.10	김지수	10,000	2024.10.05	김다연	30,000	2024.11.05
			김다연	30,000	2024.10.05	박은정	10,000	2024.11.05
이의영	30,000	2024.09.10	박은정	10,000	2024.10.05	박상록	10,000	2024.11.05
도선사협회	15,000,000	2024.09.19	박상록	10,000	2024.10.05	이의영	30,000	2024.11.11
이경준	100,000	2024.09.20	이의영	30,000	2024.10.10	이경준	100,000	2024.11.20
법전원협의회	2,000,000	2024.09.24	이경준	100,000	2024.10.21	방윤섭	5,000	2024.11.25
방윤섭	5,000	2024.09.25	방윤섭	5,000	2024.10.25	김하영	50,000	2024.11.25
김하영	50,000	2024.09.25	김하영	50,000	2024.10.25	최지석	10,000	2024.11.25
유홍수	100,000	2024.09.25	유홍수	100,000	2024.10.25	전일호	10,000	2024.11.25
최지석	10,000	2024.09.25	최지석	10,000	2024.10.25	유홍수	100,000	2024.11.25
전일호	10,000	2024.09.25	전일호	10,000	2024.10.25	학봉장학회	100,000,000	2024.11.28
김효준	10,000	2024.10.05	김효준	10,000	2024.11.05	법무법인 백송	10,000,000	2024.12.02
홍성혜	10,000	2024.10.05	홍성혜	10,000	2024.11.05	권창환	1,000,000	2024.12.03
박정현	30,000	2024.10.05	박정현	30,000	2024.11.05	이의영	30,000	2024.12.10
김준영	50,000	2024.10.05	김준영	50,000	2024.11.05	도시락캠페인	10,700,790	2024.12.19
석소현	10,000	2024.10.05	석소현	10,000	2024.11.05	이경준	100,000	2024.12.20
김국태	10,000	2024.10.05	김국태	10,000	2024.11.05	방윤섭	5,000	2024.12.26
김연각	10,000	2024.10.05	김연각	10,000	2024.11.05	김하영	50,000	2024.12.26
정철호	10,000	2024.10.05	정철호	10,000	2024.11.05	최지석	10,000	2024.12.26
김정민	10,000	2024.10.05	김정민	10,000	2024.11.05	전일호	10,000	2024.12.26
강윤구	10,000	2024.10.05	강윤구	10,000	2024.11.05	유홍수	100,000	2024.12.26
이종준	10,000	2024.10.05	이종준	10,000	2024.11.05	이상률	20,000,000	2024.12.30
윤아현	10,000	2024.10.05	윤아현	10,000	2024.11.05	김찬	30,000	2024.12.31
이창규	10,000	2024.10.05	이창규	10,000	2024.11.05	이의영	30,000	2025.01.10

이경준	100,000	2025.01.20	유원규	500,000	2025.02.10	방윤섭	5,000	2025.02.25
방윤섭	5,000	2025.01.31	이범재	1,000,000	2025.02.10	김하영	50,000	2025.02.25
김하영	50,000	2025.01.31	이의영	30,000	2025.02.10	전일호	10,000	2025.02.25
최지석	10,000	2025.01.31	이경준	100,000	2025.02.20	유흥수	100,000	2025.02.25
전일호	10,000	2025.01.31	재단법인 일우재단	100,000,000	2025.02.21			
유흥수	100,000	2025.01.31						

* 기부정보는 기부자의 익명약정 요청 및 신청서가 미접수된 경우 해당 정보가 누락될 수 있습니다.

예 우 안 내

기부금액에 따라 서울대학교발전기금에서 제공하는 예우 프로그램과 서울법대의 특별 예우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분	내용	50억 원	10억 원	5억 원	1억 원	5천만 원	1천만 원	1백만 원
기념품 및 간행물	총장 명의 감사패, 원장 명의 감사패	•	•	•	•	•	•	감사장
	기념품(본부, 법대), 간행물(본부, 법대), 달력, 생일카드	•	•	•	•	•	•	•
관악 명예 동문 특별초청	입학식, 개교기념식	•	•	-	-	-	-	-
	총장실 초청 약정식 및 감사패	•	•	•	•	-	-	-
	캠퍼스투어, 장학금 수여식	•	•	•	•	-	-	-
	기부자 초청 음악회, 전시회	•	•	•	•	•	•	-
	법대 행사 초청	•	•	•	-	-	-	-
	홍상	•	-	-	-	-	-	-
	부조	•	•	-	-	-	-	-
	기부자 리포트(본부, 법대)	•	•	•	•	•	-	-
	법대 명예의 전당(17동 1층) 명패 보존, 행정관 명예의 전당, 연구공원 명예의 전당(1억원 이상)	•	•	•	•	•	•	-
	교내 주요 행사 초청	•	•	•	•	•	-	-
	총장 공관 만찬 초청	•	-	-	-	-	-	-
	관악캠퍼스 무료주차	•	•	•	•	-	-	-
학교시설 이용편의	미술관, 박물관, 규장각 관람	•	•	•	•	•	•	-
	호암교수회관 및 서울대 기념품 할인	•	•	•	•	•	•	-
	중앙도서관 본관 이용	•	•	•	•	•	•	•
	평생교육원 수강료 할인	•	•	•	•	•	•	기한
	법학도서관 이용	•	•	•	•	•	•	•
	법대 최고지도자과정 입학추천권	•	•	•	•	•	-	-
	서울대병원 이용편의							
서울대병원 이용편의	건강검진 주선 및 진료예약	평생	평생	기한	기한	-	-	-
	의전서비스	평생	10년	기한	기한	-	-	-
	근조기	•	•	•	•	•	•	-